

한 지 손결을 머금고

손 때에 길들다

한 지 그 은근한 멋에 스며들어

우리네 발두렁이며 개울가 그리고 산중턱 어디든 자연스레 뿌리내린 닥나무.
그 닥나무를 베어다 잠시 손놀릴 새 없이 점질을 벗기고
삶고 두드려 가며 만드는 종이 가 바로 한지다.
문에 바르는 창호지, 그림을 그리는 화선지, 족본나 불경을 기록하는 복사지 등
쓰임에 따라 이름과 재질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한 그루의 닥나무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종이 한지는 글자 그대로 韓紙 Korean Paper.

서서히 저무는 해를 뒤로하고 초에 불을 켜다.
이내 따스한 불빛이 창호지가득 은하계 퍼지고
문살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데.
가흔데를 올린 새신랑과 새색시의 신방 앞에서 어긋은 창호지만
뚫어대는 이들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얇디얇은 종이 한 장 너머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관스레 엿보고 싶다.
시간이 지나 빛이 바래고 손때가 두터워질수록 한지의 은근한 빛은
우리들 마음속 깊이 더욱 스며든다.

종 이 그 리 고 한 지

종이 이전에도 기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의 재료는 있었다. 돌, 금속, 찰흙 심지어 동물의 가죽이나 뼈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수많은 기록을 남겨왔다. 그러나 그 무엇이 종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문자, 활자와 더불어 이를 기록할 수 있는 종이는 인류 정신문화의 근간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용한 파피루스(papyrus)를 비롯하여 식물의 섬유로 만든 종이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 종이의 기원은 AD 105년 중국 후한(後漢)의 채륜(蔡倫)이 만든 종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D 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평양의 장백동 2호 고분인 고상현의 묘에서 연시 3년이라는 연대기가 적힌 종이 쫓가리 양산대가 출토되고 또 AD 500년경 일본 후쿠이현 이마다때(에이첸) 지방에서 우리 선조들이 바다를 건너와 제지술을 전했다는 기록으로 보건데 우리의 종이 문화는 중국보다 1세기 가량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오랜 한지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126호)>을 탄생시켰다.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역시 한지에 기록된 인쇄물로 <직지심체요절>과 함께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이들 인쇄물로 우리는 사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천년이 넘는 시간을 묵묵히 머금은 한지의 뛰어난 보존성과 내구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식 제지기술과 생산방식으로 인해 자연의 재료와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했던 한지 제조의 여러 공정이 기계와 화공약품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얻는 대신 한지 고유의 특성과 아름다움은 본연의 색을 많이 잃게 되었다. 기계문명으로 제지기술도 발전을 거듭하여 그 옛날보다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종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흠에 뿌리내린 닥나무에서 나와 천년을 숨 쉬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한지만큼 아름다운 종이가 또 있을까.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쓰는 이야기, 그 손때에 더욱 길드느 한지는 다시금 보듬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종
이
의
상
의
종
이

예부터 한지는 문방사우의 하나로 우리 선조들이
늘 가까이 두고 귀하게 여긴 문방구다.
책은 말할 것도 없고 창호, 병풍, 장판, 지폐는 물론
모자, 우산, 갑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었다.
지천년 건오백년(紙千年 絹伍百年).
비단은 오백년을 가지만, 한지는 천년을 간다는
말은 허투루 나온 소리가 아니다.

한지는 고려와 신라시대 때 주요 교역 물품으로
그 가치는 종이의 발명국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먼저 알아봤다. 특히 고려지는 중국 역대
제왕들의 애호품으로 질기면서도 부드럽고
두터우면서도 지면이 매끌매끌 비단과 같아
견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지는 조선 말 이후 점차 사양길에 오르지만
천년을 견딜 정도로 내구성이 좋고 통풍, 방습, 향균
작용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효능을 갖추고 있어
근래에는 오히려 한지를 재료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닥을 재료로 완성된 한지가 또 다른
상품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다. 문화재 보수지,
홍차 봉지, 인공피부 이식용지, 의료용 의복 등
한지를 이용한 2차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건축, 공예, 의료,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지의 수요가 늘고 있다.

뿌
리
깊
은
나
무
로
부
터

닥나무로 만드는 한지는 닥종이라 불리기도 하는
한지는 다르게 ‘백지’라고도 하는데 흰 백(白)
이 아니라 일백 백(百)을 쓴다. 뿌리 깊은 나무를
베어 찌고, 삶고, 벗기고, 두드리고, 뜨고, 말려 한
장의 한지를 완성하기까지 아흔 아홉 번의 손이
가는데 종이를 쓰는 사람의 백 번째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종이 완성된다는 옛말을 떠올리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 고유의 한지 제조는 그만큼 수많은
손길을 거쳐야 하는 어렵고 고단한 작업이다.



1

닥나무 채취

낙엽이 진 뒤 11~12월에 시작하여 새순이 나기 전인 이듬해 2월까지 채취한다. 이 시기에 채취한 닥은 풍부한 섬유질과 적당한 수분을 함유한다. 해마다 새로 돋는 햇닥을 사용한다.

2

닥삶기

흑피와 청과를 제거한 백피를 사용하고 맑은 물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잘 불린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슬에서 넣은 뒤 4~5시간 푹 삶는다.

3

씻기 및 썬기

잘 삶아진 닥을 7~8시간 정도 슬에서 뜬을 들인 후 물에 3~4일 담가둔다. 물속에 백피를 펼쳐놓고 원료 전체에 햇빛이 골고루 내려 쬐도록 자주 고르게 섞어 뒤집어 준다. 씻기와 햇볕 쬐기는 주로 물의 온도가 낮은 겨울에 이루어진다.

4

두드리기

티를 골라낸 원료의 물을 짜낸 후 돌이나 나무판 등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2~3시간 골고루 두들겨주면 섬유질이 물에 잘 풀어지는 상태가 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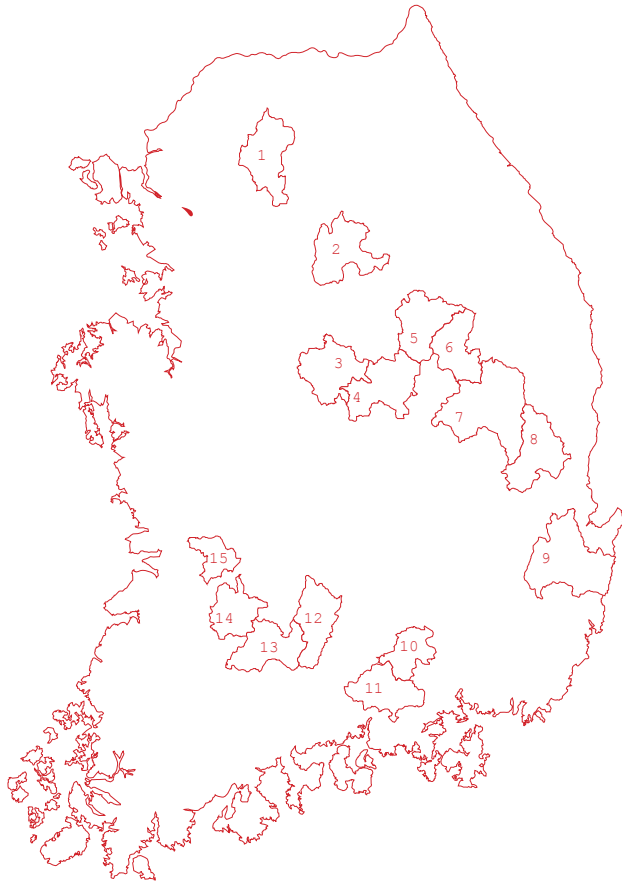
뜨기

잘 두들겨진 원료를 종이 또는 지통에 넣은 후 막대기로 저어 고르게 분산시킨다. 원료와 닥풀이 잘 혼합되어 있는 지통에 종이 뜨는 발을 담구어 전후좌우로 흔들어 종이를 떠낸다.

6

말리기

전통적인 건조법은 습지를 온돌방 바닥에 펴서 비로 쓸어가면서 말리거나, 벽 또는 나무판에 붙여서 일광건조를 시킨다. 비가 올 때는 장판이나 흙벽에 붙여 건조시키기도 하지만, 현재는 주로 철판에 열을 가해 건조시킨다.



우를 한지 만드는 사람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한지공방은 수백여 곳에 이르렀지만 점차 기계화한 양지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한지산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 뛰어난 초지기술로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에 뒤지지 않는 품질과 기품을 지니고 있는 한지가 너무도 빠르게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 그러나 여전히 전통기술을 고수하며 한지를 만드는 공방들이 있다. 한지 장인이 전통 제조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후계체계를 갖추고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몇몇 공방을 제외하면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지만 참으로 고집스럽게 우리의 종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스물네 곳의 한지 공방. 그곳에 천년의 시간을 쓰는 이들이 있다.

수록한지제조공방

- | | | | | | |
|---|--|----|--|----|---|
| 1 | 경기도 가평
장지방 (장용훈)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1671-1
T 031-581-0457 | 9 | 경상북도 경주
박성원전통한지 (박성환)
경북경주시 건천읍
송선 2리 1382
T 054-751-2014 | 15 | 전라북도 전주
천일한지 (김천종)
전북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90-4
T 063-211-1957 |
| 2 | 강원도 원주
원주한지 (장응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518-1
T 033-746-8924 | 10 | 경상남도 의령
신현세전통한지 (신현세)
경남 의령군 봉수면
청계리 217-5
T 055-573-5901 | | 용인한지 (김인수)
전북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68-2
T 063-212-5514 |
| | 원주전통한지 (윤승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11-18
T 033-761-5193 | | 대동한지 (강상모)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472
T 055-572-3226 | | 천양제지 (최영재)
전북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6-12
T 063-244-0633 |
| 3 | 충청북도 괴산
신흥한지 (안치용)
충북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22
T 043-833-5677 | 11 | 경상남도 진주
조현진한지연구소 (조현진)
경남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683-5
T 055-744-4525 | | 고궁한지 (서정철)
전북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68-7
T 063-283-5680 |
| 4 | 경상북도 문경
문경전통한지 (김삼식)
경북문경시 농안면
내서 1리 122
T 054-571-2848 | 12 | 경상남도 함양
이상옥전통한지 (이상옥)
경남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662
T 055-962-5880 | | 전주전통한지원 (강갑석)
전북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53-9
T 063-232-6591 |
| 5 | 충청북도 단양
단구제지 (황동훈)
충북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523-1
T 043-422-2018 | 13 | 전라북도 남원
실상한지 (신평식)
전북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820-1
T 063-636-3423 | | 성일한지 (최성일)
전북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68-3
T 063-214-3869 |
| 6 | 경상북도 영주
선비촌한지 (이강열)
경북영주시 순흥면
석고리 38-5
T 054-634-2602 | 14 | 전라북도 임실
청웅한지 (홍춘수)
전북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72-9
T 063-643-8101 | | 대성한지 (오남용)
전북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68-2
T 063-212-0910 |
| 7 | 경상북도 안동
안동한지 (이병섭)
경북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36-1
T 054-858-7007 | | 덕치전통한지 (김일수)
전북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658-1
T 063-643-5204 | | |
| 8 | 경상북도 청송
청송전통한지 (이자성)
경북청송군 파천면
송강 1리 281-1
T 054-872-2489 | | | | |

한지상품개발 디자인 토너먼트

한지고유의 아름다움과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기술로 한지를 만들 수 있는 공방은 점차 줄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한지가 오늘날의 쓰임에 맞는 문화상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2011 한지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한지를 현대적 미의 가치를 지닌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먼저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여기에 한지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과 생산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한지의 물성과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힘이 더해졌다.

한지상품개발 디자인 토너먼트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이너와 한지산업의 발전에 뜻을 모은 멘토단이 6개월여의 걸쳐 서로 시너지를 이끌어낸

한지상품개발 과정이다. 이들의 그동안 투로 현재 한지상품개발 디자인 토너먼트는 한지를 활용한 시제품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간 2011년 8월 ~ 12월

참가자

공예작가 및 디자이너

- 김주상 · 김태우 · 권정우 · 루스 (L O S) 김린 최정아
- 이수동 · 이혜정 상상우 · 양지우 · 이진영 · 이화선 양재원
- dialoguemethod 서형소트 어시어
- meets 형지형 박정희 장혁신 김현빈
- J. I Design Lab 이자영 정혜진
- 멘토 디자이너 권영희

한지상품을 개발하기까지

- 2011.08.10-09.23
디자이너, 참가업체 선정

 - 공모를 통한 1차 디자이너 선정
 - 참여기업 및 제조업체 선정
- 2011.09.28
사전 설명회

 - 한지상품개발 토너먼트에 대한 소개
 - 한지 물성 대한 강연
- 2011.10.08
제조공방 답사

 - 가평 장지방
 - 한지제지 현장답사를 통한 제조과정 이해
- 2011.10.15-10.16
1차 워크숍 (1박 2일)

 - 경쟁 프리젠테이션 후 2차 참가자 선정
 - 기업, 제조업체, 디자이너 연결
- 2011.11.03, 11.25
2차, 3차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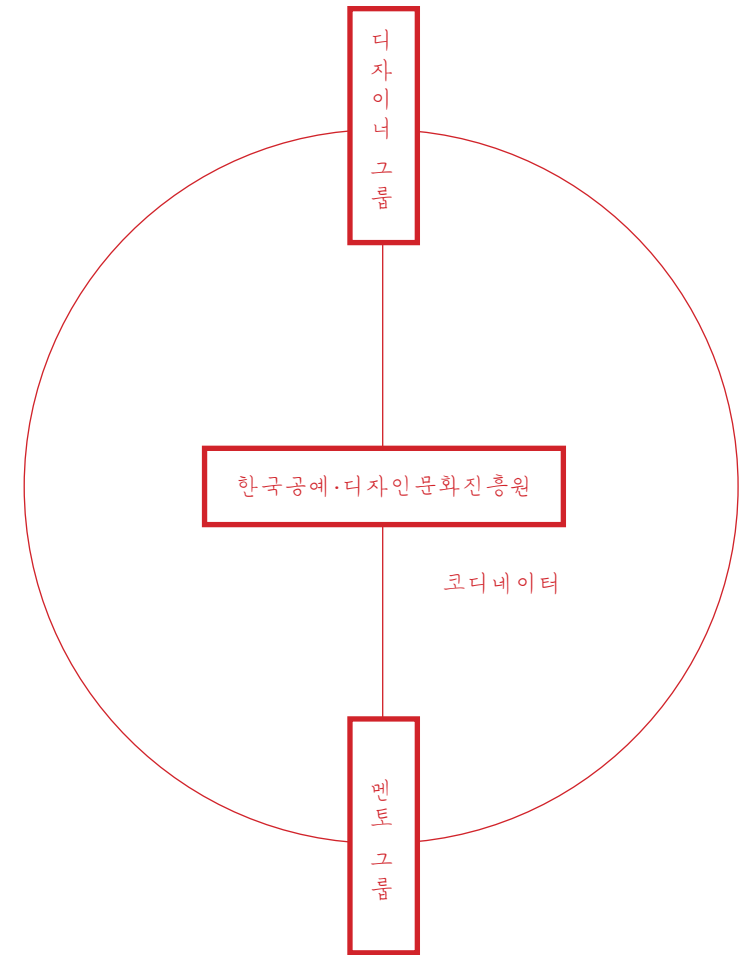
 - 상품제작 과정 점검 및 스케치
 - 디자이너 개별 1:1 멘토링
 - 시제품 검토
- 2011.11.30
상품개발 완료
- 2011.12.05-12.18, 2012.01
전시 및 양산

 - 2011년 12월 공예트렌드페어 전시 (코엑스)
 - 2012년 1월 메종&오브제 참가

모인 사람들

디자이너, 작가 와 공예가

- 공모를 통한 1차 디자이너 선정
- 1차 디자이너 26인 선정
-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2차 디자이너 12팀 선정



- 자문위원
- 한지제조업체
- 협업기업
- 멘토디자이너



김주성

국민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김주성은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syscom'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통적인 문양과 현대 아트작가 작품을 접목해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생활과 보다 친화될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yscom@empal.com / www.ytti.co.kr

Art Stationary Korean paper

stationary (노트, 엽서, 카드 등)는 현대인의 일상에 늘 함께 존재하는 상품들이다. 따라서 그 실용성을 충분히 살리는 동시에 한지 고유의 분위기와 아트작가의 작품을 접목해 예술적 가치가 깃든 작품으로 완성했다.

협력작가: 허달재, 곽수연, 이종국(공예가),
 한병호, 데미안(동화그림 작가)
 제작협력: (주)천양제지

김태우

강원대학교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한 김태우는 제품디자인 에이전시를 거쳐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웹디자이너로 재직 중이다. 응진코웨이디자인공모전 대상,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특선, 일본도야마 ADC 회장상, 특선을 수상하였다.

ehot5@hanmail.net

FOREVER-IT

접착메모지의 사용을 보다 재미있게 하는 상품. 'FOREVER-IT'을 사용하는 순간, 포스팅 자체가 하나의 작품을 즐겁게 완성해가는 재미난 놀이가 된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마침내 작품이 완성 될 때는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시간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이즈: 300×300mm

제작협력: (주)천양제지





인테리어와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에서 약 12년간 경력을 쌓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전통적인 소재와 문양을 재해석해서 벽지, 조명 등의 데코용품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esignhome2@lycos.co.kr
www.designervillage.kr/yambee

궁

우리나라의 궁궐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한지벽지·창호지 시리즈물로서, 한지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모던하게 표현하였다. 어느 곳에나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한지벽지·창호지에 프린팅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사이즈: 벽지 900×5000mm, 창호지 1200×5000mm
제작협력: (주)천양제지

로스(-los)는 좋은 디자인을 넘어 사람을 세우는 착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각각 CEO와 CDO를 맡고 있는 최정아, 김린 디자이너는 CANVAS라는 그들의 디자인 시리즈를 통해 작가들이 그들의 작업을 더 큰 세상에 선보이는 일을 후원하고 있다. 더불어 더 큰 기업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을 세우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작가들의 놀이터 “PLAYGROUND” 를 운영하고 있다.

designedbylynn@hotmail.com
www.lostheway.com

Slip-on Sneakers [CANVAS]

친환경성, 향균성, 소취성, 속건성, 원적외선 방사, 경량성 등의 특징을 지닌 한지사 원단을 이용해 만든 기능성 스니커즈. 고무신의 부드러운 곡선과 한복 깃의 겹침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심플한 디자인과 가볍고 편한 착화감이 장점이다.

제작협력: 심화숙한지연구가

multipurpose Canvas [Bojagi]

한지사 원단을 소재로 한 다용도 보자기가방. 물건을 포장하는 한지 본래의 용도는 물론 가벼운 솔더백, 돛자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이즈: body 460×460mm, strap 40×740mm
제작협력: 심화숙한지연구가

everyday 신발깔창 [Clean it up]

1-day 신발깔창. 한지의 탁월한 흡습성과 소취성이 그대로 기능해 맨발로 신발을 신어도 무리가 없다.

제작협력: (주)천양제지





오수동

'not1' - 'The answer is only not one.'
 즉, 답은 하나가 아니다. 오수동은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LED 조명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가 아닌 새로운 재료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제안한다. 앞으로의 신·구를 아우르는 재료에 대한 고민과 영감을 스스로의 감성으로 해석한 따뜻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idland21@naver.com / <http://not1.egloos.com>

‘ ㅈ ’

한지의 다양한 질감, 색체를 살린 조명이다.
 은은하게 빛을 머금은 이 조명은 테이블, 플로어, 펜던트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사이즈 : 200×350×250mm (테이블형)
 제작협력 : 장지방, (주)천양제지(한지, 전등갓), 엘이디라이텍(LED, POEWR PART), 마이즈(목재 가공, 기구파트)



오혜정
 상상우

오혜정은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상상우는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2004년 a0100z space design을 설립한 이들은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건축설계, 인테리어 설계 등을 해오고 있으며 일본 'Riken Yamamoto'의 Korea Director를 겸하고 있다. 가구와 조명에 대한 관심으로 2009년부터는 한지조명등을 디자인·제작하고 있다.
a0101z78@gmail.com / www.a0100z.com

zzaim_4

8함으로 배합한 한지를 4군데의 접점에서 한지와의 짜임, 기둥과의 짜임으로 접착제 없이 결합한 한지조명등. 해체와 패키징에서 현대화를 모색했다.
 사이즈 : 240×240×300mm
 제작협력 : 장지방

zzaim_circle 1, 2

한국 전통 가구에서 쓰이는 장식의 형태를 모티프로 1장 혹은 2장의 한지를 짜임 부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 변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즈 : D120×300mm
 제작협력 : 장지방

양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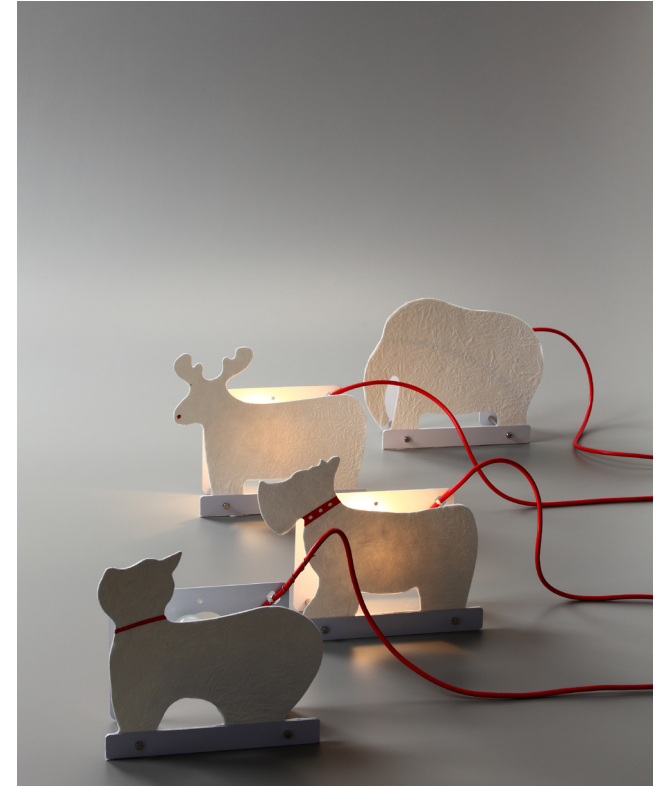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양지윤디자이너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해왔다. 울림이 있는 디자인으로 조금 더 포근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다.
niliria525@naver.com
www.facebook.com/OingJune

나뭇잎이다

시간, 별례와 같은 외부적 시련에도 오롯이 나뭇잎이 나뭇잎일 수 있는 본질은 잎맥 때문이 아닐까. 나뭇잎을 형압 기법만을 사용해 한지 고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색상을 담백하게 표현했다.

사이즈 : 60-145mm

제작협력 : 친환경 문구브랜드 '공장'



아이클루디자인의 디렉터로 활동 중인 이진영디자이너는 사람을 배려하는,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을 모토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서울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다.

softmickey@gmail.com / www.i-cluedesign.com

한지 실루엣 벽등 Hanji Silhouette Wall lamp

다소 불필요할 수 있는 벽등 전선을 동물의 꼬리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동물모양의 한지 실루엣 커버이자 동시에 조화롭게 디자인된 수유(授乳)를 위한 유아용 벽등이다. 한지 실루엣 커버는 교체형으로 지속적인 한지 수요를 이끌어낸다. 본제품의 수익금의 일부는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에 기부될 예정이다.

사이즈 : 80×220×220mm

제작협력 : (주)천양제지

이진영



이 화 선 양 재 원

이화선과 양재원은 각각 독립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제품디자이너로 가구, 조명, 생활소품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수의 국내 및 해외 프로모션 전시에 참가했다.
celleste24@hotmail.com

문방사우 필통&연필

전통 한지를 현대의 감성에 어울리는 모던함으로 재해석하여 좀 더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스테이션러리 제품으로 구성했다. 손의 접촉에 의해 세월이 갈수록 서서히 변색되는 한지의 느낌은 우리의 삶과 닮아있어 사용할수록 더욱 정감이 깃드는 특별한 필벗(筆友)이 될 것이다.

사이즈 : 필통 50×200×30mm 연필 180×10mm

'dialoguemethod'는 가구와 제품디자인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통해 세상과 대화를 하는 디자인 그룹이다.
“가구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제품은 누구보다 재미있게”를 모토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자인 페스티벌, 디자인 코리아, 코리아 투모로우, 청주국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dialoguemethod@gmail.com
www.dialoguemethod.com

H-supplies kit

한지(1t)와 자작나무(4t)를 반복적으로 적층하여 한지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자작나무 합판에 칼라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용한 모듈형 사무용품 세트로 총 6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작공법은 사무용품과 소품뿐 아니라 가구, 조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사이즈 : 120×21×70mm

제작협력 : (주)천양제지

dialoguemethod

조형식
이승현



meeets는 주로 한국 전통 콘텐츠를 현대화한 디자인을 하는 프로젝트 팀이다. 2009년 서울 디자인 올림픽 '남한 시장-오래된 미래 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의 아이템을 디자인 및 사업화했다. 이 중 'Made of Chair'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2011메종&오브제'에, 'Cozyball'은 런던의 '100% Design London 2011'에 선보이는 등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면서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해외 전시 활동과 함께 성과를 보이고 있다.

cozyball@gmail.com
<http://beeeen.com/meeets/>

한국의 민담, 민화, 색 (한지 벽지)

한국민화를 소재로 한 한지 벽지 시리즈. 민화의 상징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디지털 패턴화한 것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인체에 무해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즈: 약 120×170mm
 제작협력: (주)천양제지

한지 바스켓

대, 중, 소의 크기에 따라 작게는 냅킨 보관함에서부터 호텔이나 건물 입구 Reception Desk의 과일 바구니로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한지 바스켓, 한지 본연의 고급스러운 표면의 느낌과 따뜻한 색상이 잘 살아나도록 표면을 형압하여 주변 빛의 양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준다. 천양 제지의 최고급 한지 재료를 여러 방향으로 두껍게 발랐으므로 흡수 습기에 노출되더라도,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이즈: 약 150×150mm
 제작협력: (주)천양제지



meeets
 황지현
 박정혜
 장효신
 김현빈

이재웅 디자이너는 주로 사용자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다. 제품, 인터랙션,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 정혜진 디자이너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콘텐츠디자인과를 졸업하고 'Real Design Group'의 멤버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상상마당 디자인스퀘어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현재, 미디어 아트,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kkncwoong@naver.com

한지, 갓을 만나다

우리의 전통 모자라 할 수 있는 '갓'을 좀 더 손쉽게 체험해볼 수 있는 관광상품.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한지의 우수성과 전통 모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제품으로 허니컴 (Honey Comb) 구조를 한지에 적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나며, 접었을 때 보관이 용이하고 휴머가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사이즈: 280×280×150mm



멘토 디자이너 조명희

조명희는 현재 브랜드 스토리와 루이까또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중이며 2006년부터 다수의 해외전시 참여와 런던 세인트마틴 졸업 후 브랜드 스토리를 런칭한 이후 Top shop, 리버티 백화점 등 다수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다.

ilovestori@gmail.com

www.storisac.com

종이 보따리

핸드크래프트 효과와 민속적인 모티프를 한지소재를 사용해서 최대한 가볍게 제작하였으며, 한지의 가벼움을 자연스러운 컬러와 거친 표면감, 그리고 자개를 데코레이션해서 대조적인 텍스처 (texture)와 유선형의 형태 (shape)를 통해 따뜻함을 표현하였다.

사이즈 : 500×500mm

제작협력 : 심화숙 한지연구가



오색 보따리

미니멀한 형태감과 전통적인 매쉬 기법을 한지사를 사용하여 대담한 스트라이프 그래픽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에스닉 (ethnic)으로 표현하였다.

사이즈 : 500×600mm

제작협력 : 심화숙 한지연구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획 및 진행

장인기, 류영미, 한소라

도움주신 분들

자문위원

김근숙 (강원공예문화연구소)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형진 (국민대학교)
류준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기웅 (강원대학교)

멘토 기업

천양제지, 장지방, 화인페이퍼,
까사미아, 비헨즈, (사)전통한지공예가협회

멘토 디자이너

송민훈(MOTO design),
조명희(루이까또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kcdf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11길 8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화 02-733-9012
메일 thehanji@kcdf.kr
www.kcdf.kr



© 본 출판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저작권 및 판권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있습니다.



이 인쇄물은 천양제지에서 협찬한 한지(진흥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전화 063-244-0633 / 메일 webmaster@hanjishop.com /
www.chunyangpaper.com

